



광주도시공사-대구개발공사, 군위군 봉사

광주시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6일 대구 군위군 부계면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양 기관이 지난 3월 광주에서 체결한 '달빛동맹 사회공헌활동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첫 실천 사례다. 가을 수확기를 맞아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자매결연지인 군위군 부계면 사과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20여 명은 노사 공동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직접 사과를 수확하며 지역 농민들과 특산물 작황, 판로 개척, 달빛동맹 상생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은 "광주-대구간 달빛동맹 교류 강화 및 군공항이전 등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기독병원,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5일 중앙 라마다 호텔에서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6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지역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청, 전남대병원, 정부지정센터, 소방안전본부, 동구·남구·북구 보건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지역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공공의료 협력 방안 및 협력 체계 구축사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광주시청 보건건강국)은 "광주 지역의 공공의료 역할이 중박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명확한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GIST, 기계로봇공학부 진로탐색 세미나 성료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계로봇공학부(학부장 이재욱)는 지난 5일 대학 A동에서 학사과정 재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계로봇공학 분야 진로탐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전공 선택을 앞둔 1학년과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2학년 이상 재학생을 위해 기계로봇공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계로봇공학의 주요 분야인 △로봇모빌리티 △열유체에너지 △우주항공방산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 현직 연구자를 초청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은 △GIST 기계로봇공학부 이승현 교수의 '4차 산업과 기계로봇공학 부발전 방향' △한국기계연구원 김지철 책임연구원의 '기계로봇 분야 국책과제' △삼성전자(주)주중욱 수석연구원의 '생활가전 임펠러 개발과 엔지니어의 역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김주평 책임연구원의 '항공엔진: 가스터빈 개발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최동환 기자**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유아 마음나눔 학술제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지난 4~5일 이틀간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5회 유아 마음나눔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학술제에는 광주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18개 기관의 유아들 1100여 명과 원장 및 교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제는 참가자들의 공연과 함께 울 동아리(울동), 다섯손가락 동아리(인형극·동극), 굿네이버스 동아리(성 안전 교육), 한그루 동아리(임용고시 준비) 등 유아교육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들의 공연, 체험활동, 수업 시연, 게임활동 등 재능 나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전공수업에서 배운 이론과 모의 수업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지역사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육군 31사단, 선박 화재 인명피해 막아

육군 제31보병사단 이순신여단 레이더기지 장병들이 해안경계작전 중 화재 선박을 조기 식별하고 재빠른 초기 대응으로 구조활동에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

31사단은 지난 4일 선박 화재 사고를 막은 공로를 높이 평가해 장병들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주인공은 R/D(레이더) 운용병 길민석 병장, TOD(열열상관측장비) 운용병 이훈 일병이다.

지난달 8일 길 병장은 고흥군 나로도항에서 신호 없이 출항하는 선박을 포착했다. 이후 이 일병은 TOD를 통해 이상한 잔상을 포착하고 레이더기지 간부들에게 보고했다. 간부들은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계작전 메뉴얼에 따라 상급부대와 인접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출동한 관공선이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해 승조원 2명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다. **정상아 기자**



적십자사 광전지사, 창립 119주년 기념 연차대회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는 지난 5일 지사 앙리뒤낭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정 광주시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용수 광주시 인권평화국장과 적십자 봉사원 및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광주전남도내 적십자봉사원, 후원자, 유관기관 등 유공인사에 정부포상, 대한적십자사 유공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지사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국민포장 홍준길(광주 재난대응봉사회) △대통령표창 노경석(안전강사봉사회)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안미자(군내면봉사회) △적십자자원유공장 최고명예대상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적십자자원유공장 최고명예장 기아취(적십자 자원봉사유공장 최고명예장 전순환(백운2동봉사회) 등 총 916명으로 대표로 30명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구제길 사업자문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RCHC)'에 가입하며 의미를 더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실기 성료

광주대학교는 지난 10월 26~27일, 11월 2~3일 총 4일간에 걸쳐 총 66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은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 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자격으로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대는 민원, 인사 사고 및 개들 간의 싸움 없이 실기시험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탄탄한 시험장 운영 능력을 선보였다.

전북 완주에서 반려견 '머드'와 함께 시험을 보러온 백광일 씨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반려인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높이는 보호자교육과 더불어 국가고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동신대 간호학과, 병원 채용설명회 성료

동신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김수미)는 최근 학교 해인 3관에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목표설정을 위한 병원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동신대 간호학과 4학년 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동신대한방병원, 나주 빛가람병원, 미래아동병원, 하남성심병원, 광주병원을 비롯한 14개의 병원이 참여했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각 병원 간호부장들이 참석해 병원 소개와 채용절차, 복지, 능력 개발 기회 등을 자세히 전달하고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부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병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세세한 채용 절차, 병원의 분위기 등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최동환 기자**

뉴진스, K-팝 걸그룹 최초 日 '카운트다운 재팬' 출연

뉴진스(사진)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일본 최대 연말 페스티벌인 '카운트다운 재팬 24/25(COUNTDOWN JAPAN 24/25)' 무대에 선다.

6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는 오는 12월 28~31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뉴진스는 마지막 날인 31일 가장 큰 스테이지에 오를 예정이다.

'카운트다운 재팬'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 연말 최대 규모의 실내 페스티벌로, 지난해 기준 총 13만명 이상의 관객이 다녀갔다.

매년 일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데, 올해도 크리피 너츠(Creepy Nuts), 바운디(Vaundy), 맨 위드 어 미션(MAN WITH A MISSION), 스톤즈(SixTONES) 등이 라인업에 포함됐다. **곽지혜 기자**

